

# 교계 첫 전문전시장 불일미술관 개관

일사백이 크고 작은 전시가 열리는 인사동과 이어져 있는 공간들은 세종문화회관미술관 현대갤러리 중앙박물관 개인화랑 등 유명 전시관이 즐비한 예술의 거리, 화랑의 거리다. 특히 경복궁 박물관·공예관과 출판문화회관 전시실, 프랑코문화원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도심 포교당 법연사 영산대법전이 지난 8일 기원하며 아울러 불일미술관 개관식을 함께 가져 교계뿐 아니라 일반 미술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일미술관'이 개관됨에 따라 인사동과 공간에 있는 전문미술관은 총 80개.

불일미술관은 부드러운 기와지붕선과 화려한 단청의 전통 불교건축미를 보여주는 세련된 도심 포교당 영산대법전안에 소재해 외양부터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전문 큐레이터까지 불일미술관은 60여평 면적으로 전통 및 현대 불교미술 작품을 물론 일반 미술작품까지도 전시할 예정이며 옆에 전통다원 '연다원'이 함께 있어 문화인들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개관기념으로 주지 현호스님의 인도성지순례 사진전을 열고있는 불일미술관은 앞으로 근대고승유묵전, 송광사유물 사진전, 유명 도예가 도예전 등을 기획하고 있다.

불일미술관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 법연사 신축 영산대법전에... 문화강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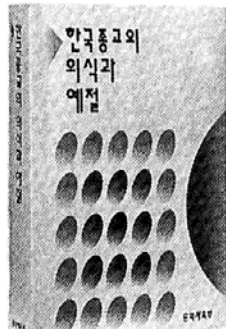
전시와 더불어 문화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불자들이 주위 직장인들,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는 △불교교리 △불교문화 △삼장경 △도자기 △불화그리기 등으로,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단계를 밟게 해 본격적으로 불교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동시에 문화통한



○지난 8일 불일미술관 개관식후 월탄스님, 현호스님, 최관수씨(왼쪽부터) 등이 인도성지순례 사진전을 돌아보고 있다.

불교포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 불일문화관장을 맡은 신영훈씨(문화재 전문위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빼어난 여러 불교예술작품을 일반에 소개하겠다"며 "특히 문화강좌에는 각 분야의 뛰어난 강사를 초청해 우리 전통문화의 향기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 창출에 역점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불교를 비롯한 23개 종교의 의례의식을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한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책자가 발간됐다.

문화체육부가 발간한 이 책은 제1부 '종교생활과 종교의례'에서 다종교 사회에서의 건전한 신앙생활, 의례의 일반적인 의미와 특성, 한국종교의

## '한국종교의식과 예절' 발간

례의 전개와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제2부 '각 종교별 의식과 예절'에서 각 종교의 역사와 교리, 일상생활의 기본예절을 소개해 놓고 있으며 의례를 기능별로 분류 수록했다.

또 3부에서는 '한국종교의례의 전망과 과제'를 통해 종교 문화전통 계승 발전문제 등

또 삼보(三寶)와 부처님의 의미, 부처님의 칭호와 불교의 제 신앙등의 교리는 물론 목어, 법고 등 사물(四物)에 대한 설명으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한편 제3부 '한국종교의례의 전망과 과제'에서 이 책자는 불교는 본래 외래종교였으나 고대 제천의례에서 비롯하고 유신앙의 의례문화들을 계승하고 나름대로 의례를 자기 종교적 전통내에서 특성화시켜온

# 다종교사회 이해·화합 도모

## 문체부, 23개 종교의례 한자리에

### 역사 교리 등 비교 상호 영향 밝혀

교의례의 중요성을 살피고 있다.

불교의 경우 전래과정, 신앙과 교리, 사찰내에서의 일상종교 예절, 의례와 의식, 태고종 등 각 단과별 의례의 특징 등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어려워하는 사찰내에서의 예절과 법당에서의 예절, 합장과 반배, 오체부지 등을 포함한 인사법등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까지 곁들여 쉽게 설명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한영우 기자

전통종교로서 불교의 재공양과 열불, 좌선, 안거등은 이미 생활관습과 한국종교의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종교의 의식과 예절' 책자 발간은 한국의 종교 전체적 규범과 함께 종교와 문화의 상호영향 등을 밝히고, 다종교 상황에서 한국 종교 문화의 다양성과 각 종교의 실제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성철스님의 표준영정에 '천(贊)'이 더해졌다.

한국화가 김호석씨가 지난해 4월에 그린 성철스님의 영정은 해인사 백련암에 모셔져 있으며 지난해 연말 임창순(任昌淳)옹이 전문 88자의 찬을 써 넣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康津金新禧 贊(강진인 김호석이 삼가 그린다)/豐師冀望靈即濫(탁이 풍부하고 이마가 넓어 바라보기에 근엄하고 대하면 온화하다)/浮世凡庸尊名譽(인간세상 평범하여 종적인 숨이 있어도 이름은 드높다)/正法妙法不傾頌(바른 법을 깨닫는데 복잡한 이론은 필요하지 않다)/禪用知解頓破群昏(어찌 지혜를



○김호석씨가 그린 성철스님 영정에 임창순옹이 88자의 찬(贊)을 써넣었다.

## 성철스님 표준영정에 임창순옹 贊 88자 써넣어

가지고 안다고 하라 한꺼번에 모든 어둠을 파헤쳐라/山外無山水外無(산밖에 산이 없고 물밖에 물이 없으며)/眞空不空無謂有(참으로 빈 것은 빈 것이 아니며 말하지 않는데 말이 있다)/醒夢一如心絕彼是(자나 깨나 마찬가지로 마음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다)/獅吼龍吟(호랑이 울음과 용의 울음)을 맞보았고 오래도록 법의 기쁨에 만족했다/慈光已遠遺像在此(사랑스런 얼굴은 이미 멀어졌으나 남긴 화상이 여기에 있다) 藉公法足以傳神(호석공의 빛나는 붓이 정신을 전하기에 충분하니)/我用作贊昭示後人(나는 여기에 찬을 지어서 후대 사람에게 밝게 보여준다)/西河任昌淳贊拜(서하인 임창순이 삼가 찬을 짓고 아울러 쓰다)

## 전시현장

안석씨는 "나무의 한결질 한결질을 벗길때마다 우리들의 장애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듯한 마음으로 작품을 했어요"라며 작품에 임한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대변했다.

## 장애인모임 불교용품 작품전

용품을 찾는 등 작품 재료비를 아끼려 했거든요. 그 힘겨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가시는 것 같아요"라며 장애인들의 전시회를 기뻐했다.

오손도손 모여 소담스런 작품 다수가 선보이고 있다. 뇌성마비,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 어눌한 손놀림 수 밖에 없는 그들이 만든 열쇠고리 목걸이 쿠션 갈매기 달기 열주지만 작품 솜씨만큼은 보기만 해도 수준급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시회를 찾는 발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장애인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도필선 기자



○한마음장애인모임 회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 "작품마다 장애극복 의지 담겨"

또 한마음장애인모임을 처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온 채수선보살은 장애인들의 심정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3년동안 온 동네의 휴지통을 뒤져야 했어요. 형질과 재할

"어머, 어쩔 이렇게 숨씨가 좋을까?"

지난 10일 운정갤러리에서 한마음장애인모임을 비롯 천마재활원, 연희복지원, 원심회, 대장회 가족들이 제작한 불교용품 전시회장을 찾은 보살들은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눈치다.

보살들의 아까운 작품 앞에서 작품설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어깨가 으쓱해지듯 표정이 상기됐다.

소아마비의 몸으로 이번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드느라 손이 성할 날이 없었던 김

## btn 불교문화대제전을 초파일 여의도광장을

불교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줄 'btn 불교문화대제전'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는 5월 23일~6월1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다.

btn이 96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행사는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를 전 불교도와 일반국민에 소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불교포교의 새 장을 열고자 마련됐다.

불교문화대제전은 불우이웃돕기, 경토잔치, 큰스님 법문등을 통해 불교의 정신과 교리를 널리 알리는 한편 불교문화의 세계를 영상과 사진자료, 불교출판물등의 전시를 통해 알리게 된다. 또한 법회 화형 공연, 작법 시연과 영상과 사진자료, 큰스님들의 작품과 인도, 네팔, 태국 등 불교국가의 주요 불교미술품도 함께 전시된다. 이와함께 불교문화대제전은 사찰의 식, 사찰음식, 사찰복식, 사찰문화재등도 소개, 우리 생활속에 깃들여 있는 불교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btn은 이밖에도 오는 20일 청소년 불경 독송경연대회를 구룡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소림사 무순단공연, 지역사찰예술제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중이다.

## 불교예술원 개원 본격활동 승무·범패 통해 도심포교

승무와 범패 등 불교예술을 통한 도심포교 활동을 펼친 한국전통불교예술원이 문을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상동동 독도빌딩 2층에 56평의 연습실을 마련하고 불교예술의 전승보급과 전통예술의 계승에 나선 원장 윤봉스님(포항 대성사 주지)은 "불교가 전통예술의 태동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60%가 기독교인인 것은 큰 문제"라며 전통불교예술원 개원취지를 밝히고 "불교행사와 각종 기념일, 법회 등에 프로그램 제공하고 공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통불교예술원은 △불교예술전문대학 설립 △불교예술단 구성·운영 △정기법회 및 고리강좌 개설 △정기공연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며 특히 올 초파일에는 원효 스님 등 불교역사와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님의 삶을 정통무용으로 꾸며 전국 순회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남처 '불심시심' 쉽니다.

#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한글 대장경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

- 현재 172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 ▶ 정가 1권 12,000원
- ▶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구입처

전화: (02) 272-2398  
(02) 269-2972

FAX: 278-4069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15. 불보행집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68. 중론백론
02. 중아함경 1-3	17. 천집백연경	53. 대매경 (외)	69. 현양 성교론 (외)
05. 집아함경 1-3	18. 현우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08. 별역집아함경	19. 출오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71. 부휴당집 (외)
09. 중일야함경 1-2	20. 법구경 (외)	56. 현경집 (외)	72. 선문집 1-5
11. 대루탄경 (외)	21. 대반야경 1-20	57. 유마경 (외)	77. 조당집 1-2
12. 불반니원경 (외)	41. 법화경	58. 입능가경 (외)	79. 전동록 1-3
13. 아라한구덕경	42. 화엄경(60권본) 1-3	59. 정법 엄처경 1-3	82. 무용당집 (외)
14. 비화경 (외)	45. 화엄경(80권본) 1-3	62. 사문율 1-3	83. 백국집, 월처당집
	48. 화엄경(40권본)	65. 선건율비사	84. 법원주림 1-5
	49. 일반경 1-2	66. 구사론 1-2	89. 경율이상 1-2
			91. 본생경(자야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중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족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바론사 1-8
			126. 십승율 1-3
			129. 근본실체유무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상불가지경
			134. 기세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실체유무비나야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무자함집경 (외)
			149. 무량정등정각경 (외)
			150. 대승보살정정법경 (외)
			151. 니야야반두 (외)
			152. 상실론
			153. 지혜와 자비의 말씀 (외)
			154. 대승보살심지관경 (외)
			155. 방광대장엄경 (외)
			156. 과거현재인과경 (외)
			157. 문수사리문경 (외)
			158. 무소유보살경 (외)
			159. 금색동자인연경 (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밀해탈경 (외)
			162. 제법집경 (외)
			163. 심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나옹화상집 (외)
			168. 원각국사집 (외)
			169. 소오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보행경 (외)
			172. 불퇴전법륜경 (외)